

콩나물재배 환경조사

- 조사표에의한 설문조사 -
- 보건복지부, 대한두채협회 공동실시 -

식품위생행정과 콩나물

인간의 기본적 수요인 의·식·주 중 생존에 원초적인 “식”은 인류의 탄생과 그 역사를 같이 해왔다. 인간은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 “식”은 중단없이 지속되는 문제이기도하다.

이러한 “식”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식품은 존재하고 생산·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구의 급격한 팽창과 좀더 맛있고 보기 좋으며 향기로운 식품을 찾는 인간의 간사한 생각때문에 식품의 대량생산과 제조·가공·유통·판매등의 이른바 식품산업의 번창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또한 기계문명의 발달에 따른 고도의 산업화에 의하여 야기되는 “산업공해”와 함께 이른바 “식품공해”의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콩나물에 대한 위생문제나 식품을 공해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게 된것도 일반적으로 상용되는 식품들이 농업중심의 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됨으로서 식품의 1차적 생산자 즉, 농축업이나 수산업등 천연 식품의 채취재배자와 최종 소비자 사이의 제조·가공·운반·저장·보관·조리·판매 등 복잡하고 수많은 과정이 분화되고 첨가되어 최종 소비자가 이러한 복잡한 과정중에서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상실하



게 됨으로서 국가가 주도하여 복잡한 식품위생문제를 행정기능으로 대처하게 됨으로서 제반 정책이 입안되게 되었고, 따라서 콩나물도 일반식품과 같이 그저 “먹는다”는 개념에 의하여 식품위생행정과 연관지어져 있고 최근에는 농약문제가 간간히 발생하므로써 식품위생차원에서 보는 콩나물의 관심도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그리고 경제발전으로 인한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식생활이 고급화내지는 다양화됨으로서 식품영역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국가의 식품위생에 대한 관심을 제고 시켰다.

경제수준의 향상은 고소득으로 이어지

고 따라서 식품이 먹는다는 단순한 식량으로서가 아니라 건강증진과 기호충족의 대상으로 변화되었고, 식품의 조달과 섭취에 편의성을 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각종 향료나 색소등 첨가물의 사용이 늘어나고 산업과 제조기술의 발전과 함께 식품제조 가공업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대량생산과 좀더 편의성 있는 식품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기호를 악용한 일부 악덕 식품제조업자가 독버섯처럼 생기게 됨으로서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콩나물도 농약사건이 심심치않게 발생하므로써 언론과 사회각계의 관심을 차츰 제고시켜나가고 있고 이에따라 위생관리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콩나물업계는 범법자의 양성소인가?

콩나물이 식품위생행정의 개입을 불러 이르킨것은 아무래도 농약이 그 주역이 된 것 같다. 콩나물을 재배하는 두채업자들도 농약이 인체에 해가 된다는 것은 기본상식으로 알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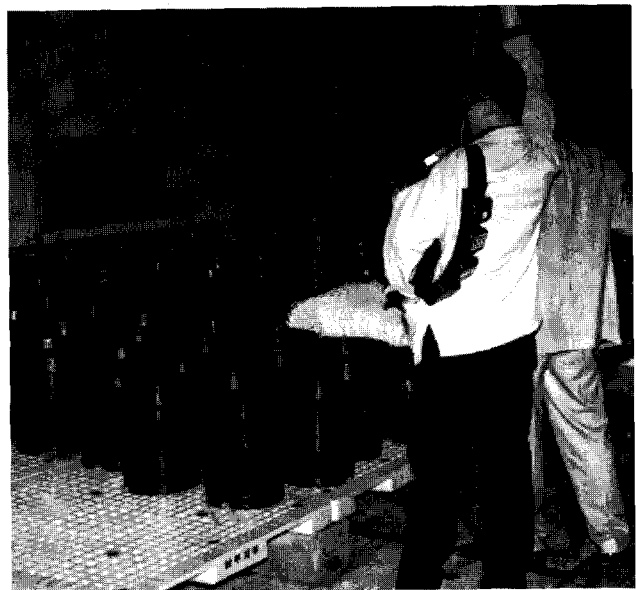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데에는 부득이한 이유때문인 것이다. 콩나물도 생물로 적당한 방제를 하지 않으면 발아나 성장 단계에서 썩거나 싹이 트지 않아 정상적인 콩나물로 자라주지를 않는 것이다. 그 원인이야 여러종류가 있겠지만 주된 원인은 콩나물로 기르기 이전의 원료콩 상태부터 부실하기 때문인 것이다.

각종 산업공해로 대기 수질 토양등이 오염되어 있고 이러한 환경속에서 농작물의 재배를 위해서는 적절한 농약의 방제

가 불가피한 것이다. 요즘 일부 두채업자에 의하여 재배된 콩나물에서 검출되는 「카바마이트」계통의 「치오파네이트메틸」이나 「카벤다짐」은 상추, 고추, 토마토, 딸기등 다른 채소류에는 5PPM까지도 잔류를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콩나물에는 미량만 검출되어도 그 업주를 처벌하고 있는 실태이다.

정부는 그동안 일반식품에 대한 규격과 검재, 시험방법, 위생규격등 식품에 대한 각종 규격기준과 처벌규정을 설정운영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한 국민보건위생의 유해방지를 위하여 기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콩나물에 대하여는 “가공식품”이나 “농산물”이냐하는 유권해석상의 혼란속에 농산물로 최종확정하고 소관을 농림부로 정하였으나 농림부 자체로서의 콩나물 전담관리의 한계와, 관련된 후속규정의 미비로 일선관청에서 콩나물 행정의 혼란과 담당자들의 콩나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마구잡이식의 단속이 이뤄지고 있고 특종만을 의식한 일부 언론에서 이를



〈표 1〉 년도별 농약사건 처벌현황

년도별	입건 (건)	구속 (건)	처벌내역			
			무죄	집유	벌금	진행중
84	20	7	4	1	15	
85	14	4	3	1	10	
86	3		2		1	
87	32	18	2	3	27	
88	18	9	1	3	14	
89	7	3	1		6	
90	12	4	2		10	
91						
92	15	8	2	3	10	
93	21	10		1	20	
94	4	2	2	1	1	
95	44	4	2	2	40	
96	29	13	2	1	14	12
계	219	82	23	16	168	12

※ 대한두채협회 제공

왜곡보도함으로서 악덕콩나물업자로 매도되고 우매한 범법자의 양산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표1〉 년도별 농약사건 처벌내역 참조)

콩나물재배시설 설문조사

산업공해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부정적이지만 부득이한 현상으로서 그 이해 득실에 관한 판단은 국가의 정책 판단에 대한 문제이자 국민들이 이것을 이해하느냐 않느냐의 한계설정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식품공해는 경제성장에 기여하는바가 거의 없으면서 개인의 이윤추구를 위하여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행위자체의 범법의사가 뚜렷하고 어떻게 보면 계획적이라는데에서 산업공해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을것

이다.

그러나 농약콩나물로 인하여 처벌받고 있는 두채업자의 경우 여타 식품위생사범으로 다루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든다. 제도설정의 미비에서



오는 시대적 희생자로서 그 역울함을 어디 하소연도 못한채 오로지 자신의 생업에 묵묵히 종사하고 있다.

96년도말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콩나물 농약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식품위생관청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됐으며 더이상 방치할 경우 향후 심각한 문제로 발전될 소지가 있음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으나 콩나물업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의 미비로 두채업계의 실태파악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대한두채협회의 협조로 96년 12월 전국(제주제외) 약 300개소의 두채재배업소를 선정, 시설일반현황과 종자공 관련사항 그리고 재배관련사항에 관하여 38개 항목에 대하여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조사현황

1. 시설일반현황

가. 재배시설은?

- ① 지상건물-(118명/39%)
- ② 지하건물(반지하포함)-(53명/17.5%)
- ③ 간이건물(비닐하우스포함)-(129명/42.7%)
- ④ 기타-(2명/0.5%)

나. 건물 구조는?

- ① 철근콘크리트-(107명/35.5%)
- ② 벽돌 연화-(58명/19.2%)
- ③ 조립식 판넬-(20명/6.6%)
- ④ 흙 토굴-(5명/1.6%)
- ⑤ 기타-(111명/36.8%)

다. 재배시설 위치는?

- ① 공장지역-(7명/2.3%)

- ② 상업지역-(14명/5.6%)
- ③ 녹지지역-(89명/29.4%)
- ④ 주택지역-(152명/50.3%)
- ⑤ 농공지역-(33명/10.9%)
- ⑥ 기타-(7명/2.3%)

라. 시설규모는?

- ① 10평이하-(11명/3.6%)
- ② 11평이상~20평이하-(77명/25.5%)
- ③ 21평이상~30평이하-(88명/29.1%)
- ④ 31평이상~50평이하-(56명/28.4%)
- ⑤ 51평이상~100평이하-(38명/12.6%)
- ⑥ 101평이상(2명/0.6%)

마. 종사자수는?

- ① 1명이상~3명이하-(237명/89.1%)
- ② 4명이상~5명이하-(27명/10.1%)
- ③ 6명이상~10명이하-(2명/0.7%)
- ④ 11명이상~15명이하
- ⑤ 16명이상~20명이하
- ⑥ 21명이상

바. 재배에 필요한 현대식 설비중 구비하고 있는 것은?

- ① 원료공선별기-(14명/4.6%)
- ② 자동 또는 반자동 세척기-(130명/43%)
- ③ 살균 소독설비-(8명/2.6%)
- ④ 자동 또는 반자동 살수기(259명/85.7%)
- ⑤ 자동 또는 반자동 포장시설-(3명/0.5%)
- ⑥ 용수 정제시설-(8명/2.6%)

- ⑦ 온 습도 조절 설비-(159명/52.6%)
- ⑧ 기계설비는 구비하고 있지 않음-(16명/5.2%)
- ⑨ 기타 설비-(1명/0.3%)
- ※ 해당되는것 모두다 기재

사. 투자액은 얼마나 되는지?

- ① 500만원미만-(3명/1%)
- ② 500만원이상~1천만원미만-(21명/6.9%)
- ③ 1천만원이상~3천만원미만(81명/26.8%)
- ④ 3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118명/39.1%)
- ⑤ 5천만원이상~1억미만-(66명/21.8%)
- ⑥ 1억이상-(13명/4.3%)

아. 투자회수율은?(3년내)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9명	30명	23명	59명	36명	35명	25명	3명	27명
(7.3%)	(11.8%)	(8.9%)	(22.9%)	(14%)	(13.6%)	(9.7%)	(1.1%)	(10%)

자. 회수기간은?

- ① 3개월 미만-(3명/1%)
- ② 3월이상~5월미만
- ③ 5월이상~1년미만-(6명/2%)
- ④ 1년이상~2년미만-(15명/5%)
- ⑤ 2년이상~3년미만-(58명/19.6%)
- ⑥ 3년이상-(214명/72.3%)

차. 1일 평균종자콩 소비량은?

- ① 1kg미만
- ② 1kg이상~5kg미만
- ③ 5kg이상~10kg미만-(1명/0.3%)
- ④ 10kg 이상~20kg미만-(7명/2.3%)
- ⑤ 20kg 이상~50kg미만-(93명

/31%)

- ⑥ 50kg이상~100kg미만-(152명/50.6%)
- ⑦ 100kg이상-(47명/15.6%)

카. 1일평균 콩나물 생산량은?

- ① 50kg미만-(6명/2%)
- ② 50kg 이상~100kg미만-(13명/4.2%)
- ③ 100kg 이상~300kg미만-(68명/22.2%)
- ④ 300kg 이상~500kg미만-(119명/39%)
- ⑤ 500kg 이상~1,000kg미만-(79명/25.9%)
- ⑥ 1,000kg 이상-(20명/6.5%)

타. 콩나물 주납품처는?

- ① 집단급식소-(29명/4%)
- ② 식당-(198명/27.6%)
- ③ 시장-(268명/37.3%)
- ④ 백화점-(13명/1.8%)
- ⑤ 슈퍼-(202명/28%)
- ⑥ 기타-(7명/1%)

※ 해당되는 것 모두 다 기재(제일 많이 납품하는 순서대로)

파. 콩나물 출하시 포장단위는?

- ① 소포장 단위-(49명/13.8%)
- ② 통째-(287명/81%)
- ③ 째잘이 나물로-(18명/5%)
- ④ 기타

※ 해당되는것 모두 기재(제일 많이 하는것부터 순서대로)

2. 종자콩 관련 사항

가. 종자콩은 어떤것을 사용하는지?

- ① 국산콩-(71명/21.9%)
- ② 수입콩-(12명/3.7%)

- ③ 상황에 따라 국산, 수입 모두 사용-(240명/74.3%)

나. 국산콩은 어느 것이 가장 좋습니까?

- ① 의성태-(13명/3.4%)
- ② 안동태-(7명/1.8%)
- ③ 영덕태-(26명/6.8%)
- ④ 점촌태-(6명/1.5%)
- ⑤ 삼주태-(3명/0.8%)
- ⑥ 전주콩-(2명/0.5%)
- ⑦ 구례콩-(31명/8.1%)
- ⑧ 전남준저리-(159명/41.8%)
- ⑨ 오리알태-(25명/6.5%)
- ⑩ 기타(제주준저리)-(108명/28.4%)

다. 종자콩에 소독을 하는지?

- ① 전혀않함-(115명/38%)
- ② 가끔함-(131명/43.3%)
- ③ 자주함-(21명/7%)
- ④ 매번함-(28명/9.3%)
- ⑤ 말할수 없음-(4명/1.3%)

라. 소독약을 사용한다면 어떤 약제를 사용하는지?

- ① 호마이수화제-(137명/76.1%)
- ② 벤레이트티-(1명/0.5%)
- ③ 비타지람-(24명/13.3%)
- ④ 캡탄수화제-(10명/5.5%)
- ⑤ 벤레이트-(1명/0.5%)
- ⑥ 오소싸이트
- ⑦ 마이코-(1명/0.5%)
- ⑧ 기타 탄저병약-(6명/3.3%)

* 약제 사용이 2가지 이상인 경우 많이 사용하는 순서대로 기재

마. 소독약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 ① 부패방지-(178명/78.7%)
- ② 발아촉진-(16명/7%)
- ③ 상품의 고품질유지-

(26명/11.5%)

- ④ 생산량을 늘리기 위하여-(6명/2.6%)
- ⑤ 노동력을 줄이기 위하여
- ⑥ 기타

* 2가지 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

바. 소독약제 사용 시기는?

- ① 종자수침시-(155명/83.3%)
- ② 발아직전-(28명/15%)
- ③ 발아직후-(3명/1.6%)
- ④ 성장중
- ⑤ 살수시
- ⑥ 출하직전
- ⑦ 기타

사. 약제사용시 어느정도 농도로 사용하는지?

(보기약제 1 : 물 2)(약제 : 물)

3. 재배관련 사항

가. 재배용기는 어떤것을 사용하는지?

- ① 플라스틱통-(230명/74.1%)
- ② 나무통-(2명/0.6%)
- ③ 합성고무통-(76명/24.5%)
- ④ 기타-(2명/0.6%)

나. 재배용기는 소독을 하는지?

- ① 하지않음-(50명/14.9%)
- ② 끓는 물로 소독-(66명/19.7%)
- ③ 세척제 소독-(88명/26.2%)
- ④ 염소계 소독-(15명/4.4%)
- ⑤ 락소소독-(97명/28.9%)
- ⑥ 기타 살균제 소독-(15명/4.4%)
- ⑦ 일광소독-(4명/1.1%)

* 2가지 이상 소독을 하는 경우 모두다 기재

다. 콩나물재배 영농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 ① 농림부, 농촌지도소 등 관계기관에서
- ② 두채협회 주관으로-(42명/13.2%)
- ③ 회원들끼리-(173명/54.7%)
- ④ 관련 문헌자료에 의해서 자체적으로-(84명/26.5%)
- ⑤ 기타-(17명/5.3%)

라. 표준 영농 지침에 의하여 재배하고 있는지?

- ① 재배하고 있음-(11명/3.6%)
- ② 무시하고 자체영농기술로-(195명/65.2%)
- ③ 표준영농기술지침이 없음-(93명/31.1%)

마. 종자공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① 실내 상온에서 보관함-(186명/62%)
- ② 냉장보관함-(67명/22.3%)
- ③ 입고즉시 재배함-(44명/14.6%)
- ④ 기타-(3명/1%)

바. 콩나물 재배일수는 몇일인지 (계절별로 기재)

구분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이상
봄	1명 (0.3%)	15명 (4.9%)	156명 (51.6%)	110명 (36.4%)	12명 (3.9%)	8명 (2.6%)
여름	9명 (2.9%)	89명 (29.4%)	143명 (47.3%)	50명 (16.5%)	8명 (2.6%)	3명 (1%)
가을		13명 (4.3%)	143명 (47.3%)	124명 (41%)	15명 (4.9%)	7명 (2.3%)
겨울		1명 (0.3%)	34명 (11.2%)	147명 (48.6%)	95명 (31.4%)	25명 (8.2%)

사. 살수에 사용하는 물은?

- ① 지하수-(301명/100%)
- ② 상수도
- ③ 간이상수도

- ④ 하천수
- ⑤ 기타

아. 살수시 어떤처리를 하는지?

- ① 하지않음-(108명/35%)
- ② 물을 받아 두었다 사용-(192명/62.3%)
- ③ 염소계 소독
- ④ 여과처리-(2명/0.6%)
- ⑤ 화학정수제 사용
- ⑥ 정수기 사용-(4명/1.3%)
- ⑦ 기타-(2명/0.6%)

차. 생장조절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① 잔뿌리 방지-(260명/51.1%)
- ② 성장촉진-(140명/27.5%)
- ③ 부패방지-(11명/2.1%)
- ④ 고품질 유지-(98명/19.2%)
- ⑤ 기타

※ 해당사항이 2가지 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

카. 생장촉진제는 언제 사용하는지?

- ① 출하직전-(5명/1.5%)
- ② 발아직후-(132명/40.8%)
- ③ 수침시 물에 사용-(160명/49.5%)
- ④ 성장도중-(1명/0.3%)
- ⑤ 기타-(25명/7.7%)

※ 해당사항이 2가지 이상인 경우 가장 많이 쓰는 순서대로 기재

타. 생장조절제 사용횟수는?

- ① 1회-(295명/99.3%)
- ② 2회-(2명/0.7%)
- ③ 3회
- ④ 4회
- ⑤ 5회이상

파. 재배콩나물 출하직전 자체적으로 분석 검사 하는지?

- ① 하고있음-(14명/4.7%)
- ② 가끔하고 있음-(114명/38.1%)
- ③ 하지않고 있음-(171명/57.1%)

하. 분석 검사를 한다면 어떤 항목의 검사를 하는지?

※ 어떤 항목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상세히 기재
 육안및 관능검사를 한다.(15명)
 나머지는 검사를 하지 않음.

가-1 콩나물 재배시 가장큰 어려움은?

- ① 발아부진-(32명/8.1%)
- ② 성장중 부패-(288명/73%)
- ③ 잔류농약-(52명/13.2%)
- ④ 위생적인 재배방법-(22명/5.6%)
- ⑤ 기타

※ 해당사항이 2가지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모두 기재

나-1 콩나물 재배하는데 영농기술 지원이나 영농자금을 받고 있는지?

- ① 받고 있음-(1명/0.3%)
- ② 받고 있지 않음-(300명/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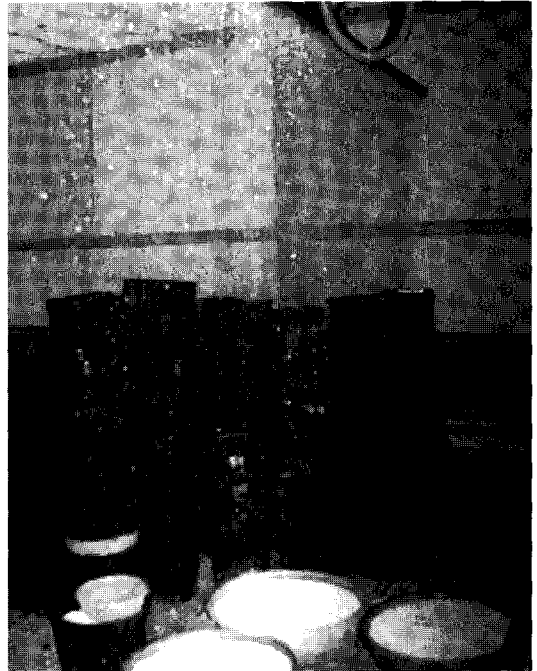
나-2 받고있다면 어떤 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지?

※ 서술식으로 기재

설문조사결과 분석

1. 시설일반현황

재배시설의 경우 간이건물인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42.7%) 나머지 자신의 주택 지상(39%)이나 지하(17.5%)에서 두채업에 종사하고있는데, 비닐하우스의 경우 대개 주거와 겸해있어 콩나물의 영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재배시설이 위치



하고 있는 곳이 녹지역(29.4%)보다 주택지역(50.3%)이 월등히 많은 것과 대조적이다.

역시 시설규모는 50평 미만이 86.6%로서 소규모이며 콩나물재배에 기본으로 갖춰야할 자동살수기는 거의(85.7%) 구비하고 있고, 온도나 습도조절장치(52.6%)도 절반이상은 보유하고 있고 재배용기세척기도 거의 절반(43%)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보아 콩나물재배에 있어 건물과 함께 자동살수기와 보일러시설, 용기세척기는 재배에 필수시설이라 할 수 있다.

종사자수는 3명이하(89.1%)가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어 가족단위로 두채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투자액의 경우 5천만원미만(73.8%)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이나마 회수기간이 3년 이상이 거의(72.3%)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단위(대부분 두 부부에 의하여 이뤄지고 있음)로 이뤄지고 있는 두채협의

수입중 기본 생계유지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재투자되고 있는 실정이고 종사자의 인건비도 못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종자콩 소비량에 따른 콩나물의 출수율, 그리고 이것을 판매한 매출액에 직 간접 비용차감후의 순수익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일정하다.

2. 종자콩 관련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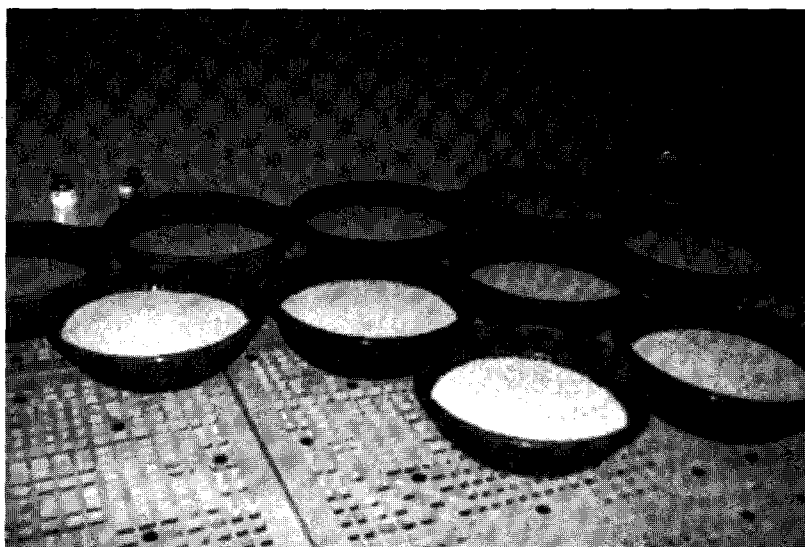
종자콩은 상황에 따라 국산 수입 모두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74.3%)한 사람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국산콩의 공급에 한계에 이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국산콩은 전라도나 제주준저리(70.2%)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다.

콩나물콩의 경우 굳이 어느 특정 콩을 선호하기 보다는 발아율, 출수율 성장력의 3대요소만 갖추어지면 품종이나 생산지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편이다. 특히 전라도나 제주준저리를 선호하는 경우 비교적 백립종(百粒重 7~10g)으로 출수율이 높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장점이 없어 두채업의 수익과 관련하여 원료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종자콩 소독의 경우 60%가 소독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이는 주로 재배중 부

패를 방지하기 위하여(78.7%) 사용하고 있으며 주로 호마이수화제(76.1%)를 사용하고 있어 언제라도 농약사건이 재발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이는 소독약제의 사용이유로서 콩나물의 부패방지를 사전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종자수침이나 발아전후를 기해 1회 정도만 소독하는 것이고 재배과정에서는 소독약 사용을 전혀 않고 있어 언론이나 사회에 알려지고 있는 콩나물이 경우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 정부에서 이에 따른 근본적인 관리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알려지고 있는 콩나물이 경우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 정부에서 이에 따른 근본적인 관리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3. 재배관련사항

콩나물재배에 있어 학술상으로 적립해 놓은 자료의 미비로 표준영농지침이 없다. 일부 학자에 의하여 콩나물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연구발표한 논문들이 있으나 재배환경이나 조건이 다양한 두채업계의 영농지침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설문조사와 동시에 협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두채업 경력 5년 이상이 81%로서 콩나물재배와 관련하여 학술로 발표할수 있다면 전부가 이 분야의 박사급이라 할수 있다.

따라서 자신들의 환경속에 의하여 재배되고 있는 콩나물에 관하여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제일 밝다고 말하고 있어 관계문



헌이 있다고해도 전혀 도움이 되지않고 간혹 의문점이 있을 경우 회원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여 이를 보완하고 있다.

콩나물재배에 이용되는 물은 전부(100%)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고 절반이상(62.3%)이 탱크에 저장했다가 사용하고 있다.재배용기는 거의(98.6%) 플라스틱이나 합성고무통을 이용하고 있으며 아직도 나무통이나 시멘트탱크에 대량으로 재배하고 있는 업소도 있다. 종자콩은 대부분(62%) 실내상온에서 보관된 콩을 사용하고있어 저온창고등의 보급이 절실하다.

콩나물 재배일수는 계절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부 실내온도 조절장치를 통하여 이를 극복하고 있고, 생장조절제는 잔뿌리 방지를 위하여 거의 전부(96.3%)가 인돌비를 수침단계나 발아직후(90.3%) 1회정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콩나물재배시 가장 큰 어려움은 성장중 부패(73%)로서 업계에서 풀어야 할 가장 큰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출하 콩나물에 대하여 분석검사는 거의 하

지않고 다만 육안으로 썩음병 정도를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두채업계에 현안된 당면과제들이 많이 있다.

우선 영세한 시설속에 지하수는 날로 오염되고 원료공 자체까지 부실한 현실에 정부에서는 여기에 따른 아무런 지원책이나 개선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콩나물재배하는데 영농기술지원이나 영농자금을 전혀(99.7%)지원 받지 못하고 재배환경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 현실에 콩나물농약사건으로 인한 범법자는 날로만 늘어가고 있다.

이에따라 늦게나마 보건복지부에서 콩나물관리 개선방안을 모색코자 재배환경실상과 시중에 유통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콩나물안전관리대책(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가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등의 대책수립은 매우 환영받을 일이다.

모쪼록 국민다소비 식품이고 훌륭한 기초 농산물로 국민생활의 애환과 함께 우리 식탁을 지켜온 콩나물이 이번 대책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그 위상이 정립되기를 다시한번 기대하는 바이다.